



콜록콜록, 여름감기가 아니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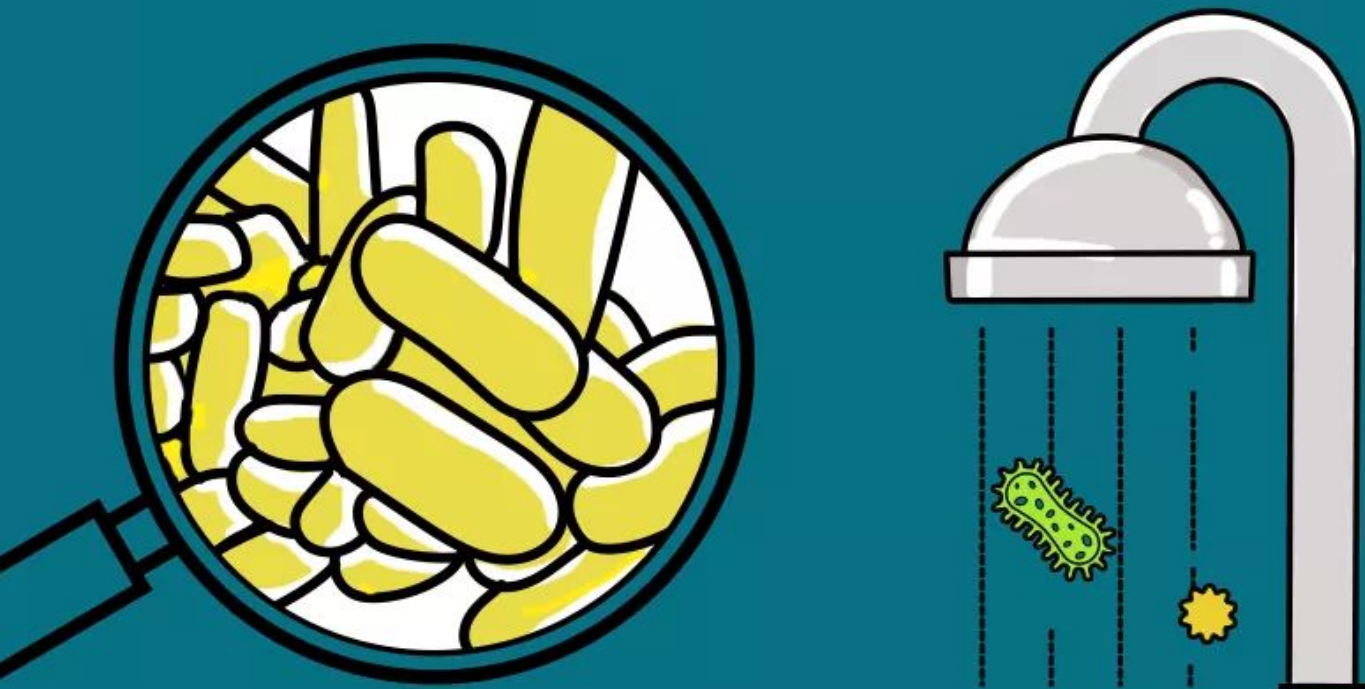
레지오넬라증의 원인과 증상

'레지오넬라증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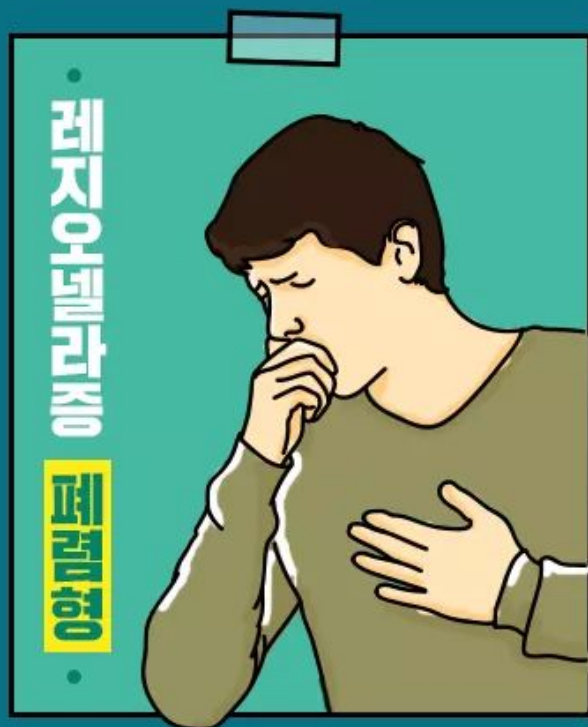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으로, 증상에 따라 레지오넬라 폐렴과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폰티악 열이 있으며, 레지오넬라 폐렴의 주된 원인균은 레지오넬라 뉴모필라 (*Legionella pneumophila*) 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의 감염경로'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이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이 발생하며, 레지오넬라증의 주요 감염원은 냉각탑수, 건물의 냉·온수, 목욕탕 욕조수 등의 인공수계시설입니다.

'레지오넬라증의 증상'



레지오넬라증은 증상에 따라 폐렴형과 독감형(폰티악열)로 나뉘는데 폐렴형은 발열,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 권태감 등을 동반하며 증상이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독감형은 초기 독감과 비슷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며, 2~5일간 증상이 지속되다가 1주일 이내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됩니다.

'레지오넬라증 고위험군'

면역력
저하자

50대
이상
흡연자

기저
질환



레지오넬라증은 누구에게나 감염될 수 있으나, 당뇨, 신부전 등 만성질환자, 만성폐질환자, 암환자, 면역저하자, 50세 이상이나 흡연자 등에서 잘 발생하며, 건강한 사람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폰티악열의 형태로 주로 발생합니다.

'레지오넬라증 예방법'



냉각탑수



건물의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 욕조수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
수온 및 소독제 잔류 농도 관리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냉각탑수, 냉·온수 급수시스템 목욕탕 욕조수를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고 **수온 및 소독제 잔류 농도 관리** 등의 방법으로 레지오넬라균 증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9.06.28



질병관리본부
KCDC